

# 전략의 개념정립

## Defining the Concept of “Strategy”

전임강사 허            출  
(Instructor Hur, Chool)

### — Abstract —

The word ‘strategy’ was derived from the ancient Greek word “strategos” or “strategus”, and used as a military term. However, it came to cover the concept of political judgement in wartime and peacetime beyond the military meaning in the complicated modern society.

The concept of strategy has not yet been defined generally because it is both intellectual and emotional – psychological. In fact, it has been used very vaguely.

Recently this extention of concept leads to the proposal that strategy is an art and a science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strategy because it may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political purpose by prevention and treatment of violence and early cessation of hostilities as well as military victory. Many factors operate in defining the concept. If one of them were ignored, the possibility of defeat would be enhanced.

There are two ways in strategy. One is from knowledge to theory and the other is from practice to action. So, it is needed to define the concept of strategy in terms of practice.

In conclusion, I will define the strategy as a theoretical, practical and inclusive concept as follows. "Strategy is an intellectual plan, an art and a science which mobilizes a nation's existent and potential resources fully and makes effective use of them to reach the national goal regardless of wartime and peacetime."

- 목 차 -

I. 서론	V. 이론과 실천
II. 전략의 개념에 대한 제 주장	VI. 결론
III. 전략개념의 정립 필요성	참고문헌
IV. 전략개념 정의시 고려요소	

I. 서론

전략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세기 말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7년 전쟁이 끝난 1763년 이후에 나타났다. 전략(strategy)이란 용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strategos' 혹은 'strategus'에서 유래된 파생어이다.<sup>1)</sup> 이 용어는 장수(general) 또는 정부의 장관급 장교를 지칭하기도 하고 "장수의 指導術(generalship)" 또는 "장수의 計略(the art of the general)"을 뜻하기도 했다.<sup>2)</sup>

---

1) 국방대학원(1984), 『군사전략-이론과 적용』(서울 : 국대원), pp.38~39.

2) 유재갑(1987), "전략론 : 군사전략의 개념과 범위", 국대원편, 『안정보장이론(I)』 (서울 : 국대원), p.386.

이러한 “전략”이란 용어는 군사적인 의미로 출발하였으나, 비군사적 요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와서는 전쟁 내지는 군사적인 개념을 벗어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이란 용어를 접미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전략”의 개념은 전시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고, 평시의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정치적 결정은 전략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략”이란 단어의 개념이 지적이고 정서적인 - 또는 심리적인 -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보편적인 용어의 정의가 없고 어떤 공통적인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전략이란 용어는 대단히 산만하게 사용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이라는 개념이 정립될 수 있는가? 개념의 정립을 해야 한다면 고려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전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 적절한가를 분석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의 범위를 이론적인 전략개념의 정립만으로 한정하고, 본 글의 구성은 기존의 전략개념에 대한 제 주장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정립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후 개념정립시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이론으로서의 전략”과 “실천으로서의 전략”이 접근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나름대로의 “전략”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 II. 전략의 개념에 대한 제 주장

전략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그

3) 유재갑(1987), p.384.

범위는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되어가고 있다.

라이더(Julian Lider)는 이러한 전략개념의 확대경향을 세 가지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sup>4)</sup> 먼저 라이더는 고전적인 전략개념으로서 전쟁·군사중심적인 클라우제비츠(Clauswitz)와 리델 하트(Liddell Hart)의 전략 정의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을 “전쟁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투의 전개”라고 하여 전쟁중심으로 정의하였고, 리델 하트는 “전시에 있어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적 수단의 분배와 적용기술”이라고 하여 군사력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양자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가 전시에 있어서 무력사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무력사용의 전략개념의 첫번째 개념적 확대 경향은 전략의 개념이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및 기술과학적인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의 수립을 다루기 위하여 무력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전투의 전략에서 전쟁의 전략으로 그 내용이 변형되었다는 점이다. 두번째의 전략개념의 확대경향은 전쟁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시에 있어서의 군사활동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략이 점증하는 비군사적 요소 - 경제적, 심리·도덕적, 정치적 및 기술적 요소 - 를 고려해야만 됨을 강조한 얼(Earle)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오스굿(Robert E. Osgood)은 ‘현대의 군사전략은 적어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및 묵시적 수단에 의해 대외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심리적인 힘의 수단들과 관련된 - 무력강제능력을 사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평화시의 여러가지 정치적 목적달성에 더 중점을 두는 접근을 하고 있다. 세번째 개념의 확대경향은 수단과 목적 양자의 확대, 전략은 때때로 정치적 목적 전부를 달성기 위한 전국력-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 그리고 그밖의 잠재력의 총체 - 의 사용으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4) Julian Lider(1983), *Military Theory*(England :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pp.193~194. 참조

구소련의 경우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군사백과사전에 나타나 있는 전략이란 용어는 “군사술의 구성부분이고 군사술의 최고분야이며, 국가나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이론과 전쟁과 전략적 작전의 계획과 수행에 관한 것이다.”<sup>5)</sup>로 나와 있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단일의 군사작전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군사전략이며, 둘째는 전략이 전쟁의 최고수준의 이론이라는 광의의 군사전략이고, 셋째는 전쟁이 비군사적인 분야까지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전쟁 이상의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군대가 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은 평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군사정책이라는 국가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대한 개념의 확대에 따라 근래에 와서는 -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 전략이 술(art)인 동시에 과학(science)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고들이 점점 공식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전략을 전장과 관련지어 순수한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군사적 승리 또는 정책에서 설정된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형성 및 운용하는 술과 과학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가의 수반 또는 행정부 수반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면, 미국의 웨드메이어(Wedmeyer) 장군은 “전략이란 국가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기술과 과학이다.”라고 주장했고, 마한(Mahan)은 “전략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대를 창설, 유지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사용하는 기술”<sup>6)</sup>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전략이라는 용어는 처음 장군의 용병술이라는 뜻에서 시작하여 현재에는 군사, 국가정책, 정치, 경제전략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개념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념적 확대는 보프르(Andre Beaufr)의 표현에서 잘 나타나 있다. “군

5) 'Strategiya voennaya', 1979, pp.555~6, Julian Lider(1983), pp.268. 재인용.

6) Peter Paret(1941), *Makers of Modern Strategy—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445~447.

사전략이란 정치적 정책에 의해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활용하는 술이다. 이 전략은 어떠한 기술을 활용하든지 간에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의지의 충돌에 의해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술(art)이며, 결과적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술(art)이다.”<sup>7)</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개념의 확대 결과로 “전략”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이라는 표현으로, 영국의 경우는 대전략(Grand Strategy)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총체전략(Total Strategy)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념의 확대가 이루어진 이 “전략”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과연 명확한 것인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은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 Ⅲ. 전략개념의 정립 필요성

전쟁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보프르가 “한때 왕들의 스포츠였던 전쟁이 오늘날에는 죽음이라는 위험이 가득찬 사업이 되었다.”<sup>8)</sup>라고 말한 바와 같이 전쟁양상의 확대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바로 전술한 전략의 개념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개념의 확대는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것이며 전략이란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계획된 행동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분명한 것은 최근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개념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관점에서 엄격하고도 정확한, 명확한 그러한 개념의 정립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전략이 과학인가 술인가 하는 논의가 있는가 하

---

7) André Beaufre(1965), *An Intruction to Strategy*(London : Faber and Faber Limited), p.22.

8) André Beaufre(1965), p.14.

면, 서구에서는 전략가들이 전략의 “학” 또는 “이론화”의 시도<sup>9)</sup>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략개념의 수직적, 수평적 확대는 더욱 두드러졌다.

전략의 이론화 요구와 시도는 제2차세계대전 이래 현대 핵전략가 특히 민간전략가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수행되었다. 과거에는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략이 종래에 있었던 분쟁으로부터 도출된 역사적 경험과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해 온 지혜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그러나 핵무기기술의 혁신적 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전쟁에서 얻은 역사적 경험은 더 이상 전쟁의 지침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군사 경험은 미래전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어떤 이점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미래전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사람들은 학계에서 등장한 이른바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전략가들’로 구성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모두 군사적 경험보다는 과학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해 있었고 정치적, 심리적 현실감각이 더 예민하였으며 이론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다.<sup>10)</sup>

이러한 개념정립에 대한 논의는 3가지 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쟁수행의 이론은 전쟁을 지배하는 규칙(이것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든 아니든 간에)을 발견하고, 또 성공적인 수행규칙을 확립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과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전쟁수행은 “과학”인 동시에 “술”로 간주될 수 있다. 과학은 전쟁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며, 기술은 전투의 성공원칙이나 전투의 지침을 다룬다. 셋째, 전쟁수행은 단지 기술인 것이며, 전투의 과정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의 증거이다<sup>11)</sup>라는 것이다.

또한 전략의 구성요소가 더 광범하게 과학적, 정치적, 심리적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에 익숙한 민간학자들은 갖가지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던

9) 이와 같은 입장의 전략가들은 Jommini를 비롯하여 Moltke, Schlieffen, Mahan, Douhet 등이 있다.

10) 유재갑(1983), “전쟁의 본질과 전략의 개념 - 술로서의 전략 -”(서울 : 국대원), pp.7~8.

11) Julian Linder(1983), pp.217~218.

것이다. 주제에 있어서도 비단 전쟁 수행문제 뿐만 아니라 억제와 관련하여 안정과 군비통제 등 민간화가 진행되면서 순수한 지적계산에 입각한 합리성을 전제로 한 여러가지 전략이론이 제시되었다. 전략기획 방식에 있어서도 체계분석, 비용효과분석, 고등통계 및 수리모형 등 엄격한 과학적 이론이 제안되었다.<sup>12)</sup> 이러한 전략의 개념이 개념적이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 있어서도 특정한 계획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전술과도 상이하며 양자간의 한계선도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다 낮은 전략적 국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차원의 전술임무를 띠고 있는 상급제대의 경우에는 전략과 전술을 혼용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략을 수행하는 전쟁수행 활동은 해답이 하나밖에 없는 “학”이나 “원칙”의 영역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가지 해답을 상황과 의도에 따라 선택하는 술의 영역에 속하는 “자유의지”의 활동<sup>13)</sup>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전략은 군사분야 외에 정치, 경제, 심리,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략의 개념을 어느 한 범주안에만 국한시켜서 정의한다거나 군사학도들에 의한 나름대로의 개념정립을 한다는 것은 전략이라는 용어의 사용의도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융통성의 결여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할 수도 있다. 차라리 전략의 차원에서 어떤 분야에 적용하려 할 때에는 그 분야나 범위에 적합하도록 정의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보다 더 융통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능률을 높일 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략의 개념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전·평시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정책의 제반 수단의 상호작용으로 성립이 되며 또한 전쟁에서의 군사적 승리(가능한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폭력사용의 예방과 대응 및 전쟁강도의 제한, 가급적이면 신속한 종전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이론과

12) 유재갑(1983), p.8.

13) 유재갑(1985), “전쟁수행이론의 유용성과 한계성”(서울 : 국대원), pp.17~18.

실제의 술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sup>14)</sup>에 개념의 정립은 꼭 필요하다 하겠다.

#### IV. 전략개념 정의시 고려요소

전략개념의 정립 필요성에 관하여서는 III장에서 논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개념 정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각 학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전략의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략의 기본요소를 정신적, 물리적, 수학적, 지리적 및 통계적 요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sup>15)</sup> 첫째, 정신적 요소는 정신적 특질과 효과에 의하여 생기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둘째, 물리적 요소는 전력의 규모, 편성, 병종 등이 포함되며 셋째, 수학적 요소는 작전선의 각도, 외부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구심적 운동 및 중심에서 외부로 향하는 이심적 운동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운동은 그 운동형식의 기하학적 성질이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산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넷째, 지리적 요소는 지형의 영향, 즉 전망이 좋은 지점, 산지, 산하, 숲, 도로망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요소는 보급의 모든 수단이 여기에 속한다.

콜린스는 “전략모형”<sup>16)</sup>에서 크게 투입요소와 힘의 요소로 분류하고 투입요소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심리,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힘의 요소는 국가제도, 군사력, 지리, 자연자원, 산업능력, 무력, 재정, 인구, 국민성, 사기, 과학 및 기술, 지도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4) 유재갑(1987), p.412. 참조.

15) Carl von. Clausewitz(1976), *On War*, ed. and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83.

16) John M. Collins(1973), *Grand Strategy : Principles and practics*(Annapolis Maryland : Naved Institute press), p.2.

하워드(Michael Howard)는 전략의 4가지 차원 즉 작전적, 군수적,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차원<sup>17)</sup>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의 전쟁은 이 4가지 차원에서 수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 4가지 전부를 고려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드류(Dennis M. Drew)는 3가지의 기본원칙<sup>18)</sup>을 말하고 있다. 첫째, 연계성의 원칙 둘째, 미래성의 원칙 셋째, 현실성의 원칙이다. 또한 전략수립과정에 미치는 6가지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그 요소란 안보정책, 대상, 목표, 과정, 문제의 본질 및 해결책, 정책의 맥락이다. 이 요소들은 각각 전략의 구상과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전략개념 정의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많다. 그러나 전략개념의 정의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 달라지며 어느 하나라고 꼭 짚어 말할 수 없다. 또한 이론과 실제 적용상의 문제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전략의 개념 정립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무수히 많으며 이 요소중 어느 하나를 무시할 경우 패배의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 V. 이론과 실천

전략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첫째로 구분해야 할 사항은 “이론으로서의 전략”과 “행위방법으로서의 전략”이다. “이론으로서의 전략”은 상황조건의 변화에 관련없이 모든 전쟁수행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원칙 또는 현대전쟁의 이론적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편 “행위의 방법으로서의 전략”은 한 나라가 전쟁 또는

17) Michael Howard(1980), *Strategy : A reader. - The Forgotten Dimension of Strategy*, ed. George Holt and Walter R. Millian(Washington D.C : National Defence Univ.) p.5.

18) 공군대학(1987), 『전략개론』(서울 : 공군대학), pp.20~23. 재인용.

국가방위를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계획 또는 행위 그 자체에 관한 것이다.<sup>19)</sup>

와일리(J.C. Wylie) 미해군소장은 전략의 정의가 전쟁상황이나 군사적 적용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조치를 둘 다 고려해야 하므로 전략의 일반적인 이론이 어떠한 분쟁상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군사문제가 전반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지적인 연구주제로서의 전략의 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전략을 “어떤 목적, 즉 그 달성을 위하여 일련의 조치체계를 포함하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행동계획”<sup>20)</sup>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보프르는 “전략은 하나의 사고방식이며 그 목적은 제반사태를 분석정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선의 행동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sup>21)</sup>라고 하여 실천적인 차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콜린스(John M. Collins)는 전략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면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분리시키면서, 전략가는 목적, 수단, 그리고 개입위협에 의해서 설정된 개입변수들 내에서 여러각도의 철학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22)</sup>

이론과 건전한 원칙에 집착하는 접근방법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무심코 위반하게 되면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전략은 적용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상황을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론과 원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략을 적용하는 전쟁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이론이나 원칙을 실제 상황과 접합시킬 때 잘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략의 이론은 전략연구가에 의해 만

19) 유재갑(1987), p.411.

20) 유재갑(1987), p.399. 재인용.

21) André Beaufre(1965), p.13.

22) John M. Collins(1973), pp.14~15. 참조.

들어지고 전략의 실제적용은 정치인(정부 관리)이나 전장의 지휘관에 의해 수행되는데서 나타나는 차이와 “전쟁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치의 연속”<sup>23)</sup>이라는 측면을 상호 잘 조화시킴으로써 전략의 이론과 적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어느정도 좁혀 성공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은 지식에서 이론으로 가는 차원과 실천에서 행동으로 가는 차원의 이중성이 있다 하겠는데 이에 대하여 아롱(Aron)은 지식 그 자체를 위한 지식과 실천적 목적을 위한 지식으로 구분하고 전략을 “실천지(Praxeology)”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실천지로서의 전략은 외교와 마찬가지로 전쟁과 평화의 과학 즉, 국제관계의 과학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술로서 성립된다고 제안하고 있다.<sup>24)</sup> 따라서 전략의 개념을 실천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 VI . 결 론

전략의 개념은 “장수의 술(art)”이라는 의미로 시작하여 클라우제비츠, 리델하트를 거쳐 계속적으로 논의되면서 개념의 확대와 변경을 가져왔다.

이러한 전략은 국가전략, 대전략, 총체전략 등의 표현으로 나타났으나 각 학자들마다의 정의와 개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엄격하고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전략과 전술의 양자간 한계도 분명하지 않고 혼동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전략개념의 한정은 오히려 융통성을 결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전략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정책의 제반수단으로, 전쟁에서의

---

23) Carl von, Clausewitz(1976), p.87.

24) Raymond Aron(1968), *Peace and War*, trans by Richard Howard and Annette Baker Fox(New York : Praeger pub), pp.4~5. 유재갑(1983), pp.3~4. 재인용.

군사적 승리, 폭력사용의 예방과 대응 등 정치적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이론과 실제의 술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즉, 전략이란 보편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하나의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한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며 각각의 현상을 계통적으로 배열하고 그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행동방책을 선택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sup>25)</sup>

이러한 전략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고려요소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 많은 요소들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하게 되면 그만큼 실패의 가능성은 증대된다. 또한 실제 이론과 실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상호 연관성을 잘 조화 시킴으로써 그 차이를 어느정도 좁혀 성공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 와서 특히 전략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전쟁예방을 위한 억제와 평시의 위기관리로 전략적 안보상황을 창조 유지하는 것이 두드러진 정치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전략의 개념을 이론적이고 실천적이며 또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음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전략이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목표달성을 위하여 한 국가의 군사,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이념, 역사 등의 현존자원 뿐만 아니라 잠재적 자원 모두를 포함하여, 국가의 총역량을 건설하고 유지하며 필요시 이를 총동원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적인 계획이며 기술(art)인 동시에 과학(science)이다.”

25) 유재갑(1983), p.47. 참조.

- 참 고 문 헌 -

1. 공군대학(1987), 『전략개론』(서울 : 공군대학)
2. 국방대학원(1984), 『군사전략-이론과 적용』(서울 : 국대원)
3. 유재갑(1983), “전쟁의 본질과 전략의 개념 - 솔로서의 전략 -”(서울 : 국대원)
4. 유재갑(1985), “전쟁수행이론의 유용성과 한계성”(서울 : 국대원)
5. 유재갑(1987), “전략론 ; 군사전략의 개념과 범위”, 국대원 편, 『안정보장이론 ( I )』(서울 : 국대원)
6. André Beaufre(1965), *An Intruction to Strategy*(London : Faber and Faber Limited)
7. Carl von. Clausewitz(1976), *On War*, ed and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8. John M. Collins(1973), *Grand Strategy : Principles and practics*(Annapolis Maryland : Naved Institute press)
9. Julian Lider(1983), *Military Theory*(England :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0. Michael Howard(1980), *Strategy : A reader. - The Forgotten Dimension of Strategy*, ed. George Holt and Walter R. Millian(Washington D.C : National Defence Univ)
11. Peter Paret(1941), *Makers of Modern Strategy-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 Raymond Aron(1968), *Peace and War*, trans by Richard Howard and Annette Baker Fox(New York : Praeger pub)